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베르뇌 주교 등 7위 순교자 시신의 왜고개 안장에 참여한 신자들

- 『박순집 증언록』, 『병인치명사적』,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포도청등록』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자 명단 -

1866년(병인)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자 제4대 조선대목구장 베르뇌 주교, 브르트니에르 신부, 도리 신부, 볼리의 신부는 그해 3월 7일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을 받아 위주치명(爲主致命,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침)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3월 11일 푸르티에 신부, 프티니콜라 신부, 정의배 마르코, 우세영 알렉시오도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을 받아 치명했습니다. 순교자들의 시신은 처형된 지 3일 후 근처 모래밭에 대강 묻혔지만, 군사들의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박순집 베드로를 비롯한 신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베르뇌 주교를 비롯한 순교자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왜고개에 안장했습니다. 가족(아내 피 가타리나와 처조카 피영락 바오로)이 먼저 수습한 정의배 회장을 제외한 7위 순교자의 유해는 시복 수속이 진행되는 가운데 발굴되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림1] 『박순집 증언록』



[그림2] 왜고개 성지 터(표지)

7위 순교자 시신 안장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박순집은 1888년 구술 증언(『박순집 증언록』), 김중빈 프란치스코·김형옥 요한과 함께 기록한 1885년 또는 1895년의 보고서(『병인치명사적』 24권에 수록), 1899년 시복재판 출석 증언(『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5회차)을 통해 안장 과정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안장 일자에 대해 세 자료마다 다르게 나와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사건이 있는 지 수십 년 후에 그 기억을 떠

올리면서 진술·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함께 안장에 참여했던 신자들에 대해서도 박순집은 구술 증언과 시복재판 증언에서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중빈·김형옥과 함께 기록한 보고서에서 안장에 참여했던 신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박순집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자료와의 대조·비교를 통해 안장에 참여했던 신자들의 이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박순집 관련 자료 세 가지 외에 필자가 확인한 자료는 시복재판에 참석한 다른 증인들의 진술(『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차 포함)과 포도청에서 잡혀 심문을 받은 신자들의 진술(『우포도청등록』)입니다. 이 자료들은 대부분 7위 순교자 안장에 참여한 신자들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7위 순교자 시신의 왜고개 안장에 참여한 신자 숫자에 대해 20여 명에서 100여 명까지 각기 다른 증언이 있지만, 당시 안장을 주도했던 박순집은 총 74명이 참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안장에 참여했던 신자들은 박순집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했는데, 시신의 발굴과 운반에는 44명이, 망을 보면서 어두운 밤길을 안내하는 역할에는 13명이, 나머지 17명은 왜고개에서 미리 무덤 구덩이를 파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박순집 증언록』 7뒤~8앞) 그 외에 시신에게 입힐 수의(襚衣)와 시신을 넣을 관, 기타 장례 도구와 물품을 준비한 신자들이 있었고, 장례 비용을 모금할 때 적고 많은 돈을 기꺼이 내놓은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을 통해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증언자	일시(1차) 처형지 근처	일시(2차) 왜고개	참여 신자	전거(역주)
박순집 증언록	박순집 베드로 (1888년)	3.28(양5.12)	4.14(양5.27)	박순집과 신자들 총 74명 발굴 - 44명, 길 안내 - 13명, 무덤 파기 - 17명	6뒤-8뒤 (45~47쪽)
치명 사적	김중빈(金重彬) 프란치스코, 박순집(朴舜執) 베드로, 김형옥(金衡玉) 요한 [한문 문서]			수의 - 김 마리아 관곽 4건 - 남문 밖 박 베드로 장례 (참여) - 박봉석(朴鳳錫) 형제, 김 회장 요한, 조(趙) 참봉의 부친, 신치관(申致觀), 피영록(皮永祿)	24권 73쪽 (5책 737쪽)
		2.28(양4.13)	3.14(양4.28)	신자 70여 명 모금. 40명 참여 *을유(1885) 5.9(양6.21) 또는 을미(1895). 음5.9(양6.1) 기록	24권 74쪽
시복재판(1) 15회차	박순집 (1899.7.27)	1.22(양3.8)	3.17(양5.1)	박순집과 신자들	2권 128~130쪽
시복재판(1) 24회차	오치옥 요한 (1899.8.8)	2.29(양4.14)	3월[음력]	박순집과 신자들[100여 명]	2권 253~256쪽
시복재판(1) 38회차	강성원 요한 (1899.12.4)			김흥민 회장, 박순집, 오치옥 등 참여 [전해 들음]	3권 418쪽
시복재판(1) 39회차	김흥민 요한 (1899.12.5)			박순집, 김 프란치스코, 오치옥, 김흥민 요한 *김흥민이 관을 왜고개에 가져다 둔 후에 안장 참여	3권 433~434쪽
시복재판(1) 126회차	김치범 프란치스코 (1900.9.12)			박순집, 김치범 프란치스코	9권 1793~1795쪽
시복재판(1) 130회차	유 바르바라 (1900.9.26)			증인 유 바르바라 집에서 수의와 장사치를 물건을 마련함	9권 1844~1845쪽
시복재판(2) 46회차	김흥민 요한 (1922.12.10.)			김흥민 요한, 박순집과 20여 명 신자	6권 72~73쪽
우포도청 등록	조성로 마태오 (1868.음3.8)		와서현 (瓦署峴, 왜고개)	조성로(趙成老), 최사관(崔士寬), 신자 몇 명	영인본 중권, 699~700쪽

자료	증언자	일시(1차) 처형지 근처	일시(2차) 왜고개	참여 신자	전거(역주)
우포도청 등록	박순지 요한 (1868.3.30)		와서현 (瓦署峴, 왜고개)	박순지(朴順之), 나의 봉석(矣身奉石), 신봉석(申鳳石), 홍성보(洪聖甫), 조성로(趙成老), 안중현(安仲玄), 박성운(朴聖雲) *염할 도구는 김홍범(金弘範) 집에서 가져옴 *최사관(崔士寬) 회장은 매장 장소에서 동참	영인본 중권, 708쪽

위의 도표를 통해 박순집, 김흥민 요한, 오치옥 요한, 김치범 프란치스코가 왜고개 안장에 참여했으며, 시복재판에도 출석하여 증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68년에 잡혀 우포도청에서 진술한 조성로 마태오와 박순지 요한도 안장에 참여했음이 확인됩니다. 시복재판 증언자 유 바르바라는 직접 안장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집에서 수의와 장사치를 물건을 마련했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김중빈·박순집·김형옥의 보고서에 의하면 수의를 장만한 사람은 김 마리아인데, 위의 유 바르바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관곽 4개를 준비한 사람이 남문 밖에 사는 박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박순지의 포도청 진술에서는 김홍범(요한) 집에서 염할 도구를 가져왔다고 나옵니다.

박순지는 최사관 회장이 왜고개에서 동참했다고 진술했는데, 조성로의 진술에도 최사관이 함께 했다고 나옵니다. 또한, 박순지의 진술에서 조성로의 이름이 확인됩니다. 김중빈·박순집·김형옥의 보고서에 언급된 김 회장 요한은 김흥민 요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조 참봉의 부친은 조성로로 추정됩니다. 김중빈·박순집·김형옥의 보고서에 언급된 신치관, 피영록, 박봉석 형제는 다른 자료에서 바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박순지의 진술에 나오는 ‘나의 봉석(矣身奉石)’, ‘신봉석(申鳳石)’에서 ‘봉석’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세례명 베드로(盤石)의 별칭이 아닌가 추정해 보았습니다. 이 추정이 가능하다면, ‘나의 봉석’은 ‘나의 베드로’로, ‘신봉석’은 ‘신 베드로’, ‘박봉석 형제’는 ‘박 베드로 형제’로 볼 수 있습니다.

‘신봉석’=‘신 베드로’는 보고서에 나오는 신치관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지만, 신치관의 세례명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입니다. 만약 ‘나[박순지의 베드로]를 ‘나[박순지의 형제 베드로]’로 볼 수 있다면, 보고서에 언급된 박봉석 형제는 박순지 요한과 박 베드로 형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추정해 본다면 박순지 요한의 형제 베드로가 ‘박순집 베드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로 보았을 때 박순지 요한[1827년생]이 박순집[1830년생]의 형이며 1868년에 순교한 박순집의 형 ‘박 요한’[『박순집 증언록』 1권 20뒤~21앞]과 동일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성로가 조 참봉의 부친과 동일 인물이라면 1868년 강화도에서 최인서 요한과 함께 순교한 ‘조 참봉의 부친’과도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으며, 최인서와 함께 순교한 ‘박순집의 형’이 조성로와 비슷한 시기에 우포도청에서 진술한 ‘박순지 요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박순집 증언록』 1권 30앞]

박순지의 진술에 나오는 홍성보, 안중현, 박성운은 위의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성운(朴聖雲)은 박순집의 조카로 ‘하느님의 종’인 박성운(朴聖雲) 바오로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료들을 비교·대조하고 추정을 더하여 베르뇌 주교 등 7위 순교자 시신의 왜고개 안장에 참여했던 신자들의 명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자	시신 발굴 및 운반	수의 마련	관 및 장례용품 마련
74명	박순집 베드로와 박순지 요한 [박봉석 형제?], 김흥민 요한, 김치범 프란치스코, 오치옥 요한, 조성로 마태오[=조 참봉의 부친], 신치관[=신봉석], 피영록, 최사관, 홍성보, 안중현, 박성운[=박순집의 조카, 박성운 바오로]	김 마리아, 유 바르바라	박 베드로[남문 밖 거주], 김홍범 요한

필자가 작성한 이 명단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자료 발굴과 연구의 심화를 통해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모방 신부의 라틴어 서한 : 신학생 서약서(2)

지난 호에 이어서, 기해박해 순교성인 모방 신부가 작성한 라틴어 서한 중 1836년 12월 2일자 서한인 ‘신학생 서약서’(A-MEP Vol.1260 f.99, 연구소 정리번호 30번)의 기존 편집본들의 성과와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소개드립니다.

1) 한국교회사연구소(1996),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42쪽.

이 서한의 첫 번째 편집본은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순교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편찬·간행한 자료집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원문판독은 배세영(마르셀) 신부[M. Péglise, 파리외방전교회]가 담당했다고 나와 있지만, 라틴어 부분은 다른 사람이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앞서서 문헌을 판독하고, 번역하고, 주석 작업을 하고, 원문대조로 편집했다는 점에서 선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헌 디지털화가 진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작업이었던 만큼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서한의 편집본에서도 원문에서 누락된 부분과 판독이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누락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수신인 : ‘……에 계시는 조선 신학교 교장신부(À M^r Le Supérieur du Collège des Coréens à……)’ ②문서정리자 2인이 각각 쓴 발신 연도와 일자 : ‘1836’, ‘2 X^{bre}(12월 2일)’ ③모방 신부가 두 번 연속으로 쓴 구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D. N. J. Ch. D. N. J. Christi)’ 중에서 앞에 쓴 구절(D. N. J. Ch.)

판독에도 몇 가지 오류가 보이는데, 아마도 복사본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지식에 맞추어 판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①경기도 : Kiangkito를 Kiengkito로 읽음. ②다라골 : ‘다라골(Taraccol)’을 ‘다리골(Taricol)’로 읽음. ③김 : Kin을 Kim으로 읽음. ④면천 솔피 : mintsienSolmay를 mintyen Solmay로 읽음. ⑤서한 작성일 : ‘2일’을 ‘3일’로 읽음. (다음 호에 계속)

정혜정 마리나(연구원)

소식과 공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교회사학 20호 간행

- 2022년 3월 31일 발행. 특집논문, 연구논문, 보고서, 자료 정리, 부록 포함, 300쪽.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